

自然의 價値認識과 國立公園 利用姿勢

—文化人 다운 利用—

金 俊 鎬

<會社員>

우리의 歷史와 文化遺産들을 살펴보면 자랑스
러운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
장 貴重한 財産이며 보물로서 先祖들께 感謝해
야 될것은 조그마한 땅덩이인 「金繡江山」이라 아
니할 수 없다. 우리 民族의 祖上들은 자랑스럽
고 아름다운 自然 「錦繡江山」을 文化創造의 터
전으로 保全하고 가꾸어 우리에게 물려주었다.

自然을 사랑하고 가꾸면서 人格陶冶를 위한 心
身鍛鍊의 道場으로 利用했던 우리 民族의 슬기로
운 智慧는 生活周邊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 볼 수
가 있다.

詩 한귀절 한가락의 노래에도 山水를 讚揚하
고 사랑하는 心思가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 없
을 만큼 自然과 同和되기를 좋아했고, 自然을 즐
길줄 알고 가꾸며 손질하면서 文化創造의 根本
바탕을 삼았던 것은 우리 古來의 傳統이며 자랑
거리다.

이렇게 뿌리깊은 自然愛護思想이 언제부터 忘
却의 굴레에 덮혀 自然保全의 必要性까지 낳게
되었는지? 疑問과 놀람이 앞선다.

保全이란 말 없이도 今世紀까지 保全되어온 錦
繡江山을 오늘의 文明世界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지? 언뜻 생각하면 自家撞着的인 行爲라고 단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을 사는 人間으로서 이를 理解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지만 한가지 矛盾은 하
나의 對象과 目的을 위해서 二律背反的인 行爲
를 恣行하고 있다는 點이다. 즉 삶을 보다 潤澤
하고 값지게 營爲하기 爲해서 自然을 破損내지
破壞하였고 이를 위해서 自然資源을 保護保全해
야 된다는 人間史의 興望盛衰를 가늠할 相反된
課題를 同時에 解決하자는 일이다.

自然을 利用하지 않는 삶의 營爲가 있을 수 없
고 自然을 保全하지 않고는 利用할 수 없다는 命
題를 놓고 본다면 利用에 앞서 保全의 必要性이
絕對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根本問題를 깨달아 자칫했다라면 自滅
의 길을 걷게 되었을 우리人間은 「萬物의 靈長」
임을 再確認하는 슬기로 國立公園을 誕生시켰고
國立公園運動을 積極化하는 등 自然保全과 利用
을 위한 合理的인 方案을 만들어 낸것이다.

너무 誇張된 表現이라 할지 모르나 보람된 삶
의 영위와 國立公園의 關係를 分析해 볼때 絕對
的이고 合理的인 人間最上의 智慧로운 產物中的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立證하고 確信을 갖게 하는것은 國立公園
의 指定趣旨와 目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國立公園指定의 궁극적인 目的은 産業의 發達
과 機械文明의 高度化로 因한 自然生態系의 破
壞와 自然의 蠶蝕을 人間의 意志로서 未然에 防
止하고 開發의 손이 미치지 않은 景觀地나 文化
遺蹟地等 最少限의 地域이라도 保護·管理하여
永久保全토록 하는 한편 利用을 增大시켜 生活
環境을 改善하고 永久的인 福祉生活터전을 造成
하는데 있다. 즉 單純한 風景地域의 保存에 局
限된 것이 아니며 永久的인 保全과 合理的인 利用을
前提로한 保護管理에 重點을 두고있다. 이러한
自然保護問題가 加速化되어 國立公園運動으로 胎
動하게된 것은 10餘年前의 일로서 歷史가 짧고
개발도상국으로 成長하기 까지의 社會經濟的 開
發政策의 偏重과 不調和等으로 一般國民에게 널
리 普及되지 못하고 있는 現實이나 人口增加 產
業公害, 都市公害等 人類 生存을 위협하는 위험
要素의 增大, 所得水準向上과 國民生活 意識構

造의 變化, 餘暇善用과 觀光趣向의 變化等으로 自然에 대한 價值認識과 希求感이 增大될 것으로 豫測되고 있어 國立公園의 利用도가 높아지리라는 것은 確實하다.

이와같이 國立公園의 利用增加 趨勢에 따라 政府에서는 保護와 管理에 重點을 둔 開發計劃을 樹立하고 段階的으로 管理施設 및 利用便益施設과 保護施設을 擴充해 나가고 있다. 利用의 合理化를 위한 管理體系의 確立과 便益施設의 擴充은 永久的 保全과 利用을 위해서 時急한 事業이나 이보다 앞서 解決되어야할 課題는 利用者의 올바른 姿勢와 國立公園觀의 確立이 急先務이다.

政府의 政策的 배려와 先覺者들의 努力으로 가꾸어지고 있는 國立公園은 休息과 自然探勝 및 學術研究道場으로서 快適한 場所임에 틀림없으나 利用하는 一般國民이 이를 理解하지 못하고 單純한 美感의 追求나 行樂場所로 認識하게 된다면 막대한 開發投資가 허사가 될뿐만 아니라 우리의 後孫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貴重한 財産을 損하는 行爲가 되고만다. 自然의 眞正한 價値와 國立公園의 指定趣旨를 認識하지 못한 探訪客들은 國立公園 入場料徵收가 不當하다는 意見을 提示하고 있으나 이는 無知에서 오는 잘못된 생각이다. 入場料의 徵收는 自然의 探勝利用 便宜와 保護保全을 위한 投資財源의 確保手段으로서 活用되고 있는 것이지 國家에서 自然을 觀覽하는 對價를 받는 것이 아니다. 再言하면 國立公園入場料는 相對的 對價支拂 行爲, 즉 自然 觀覽料가 아닌 人類의 生存과 福祉環境造成 및 生活環境改善을 위한 絕對的 投資金이다. 그 投資效果는 子子孫孫으로 이어져 直接間接으로 보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의 단편적인 不條理에 불과하며 根本 問題는 先祖로부터 물려받은 錦繡江山을 어떻게하면 우리의 後孫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가 이다.

課題의 解決은 어려운일만은 아니며 온 國民이 自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自然을 對하는 姿勢가 올바르게 確立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즉 俗世의 私利私欲을 버리고 自然과 親

熟해질 수 있으면 된다. 손대지 말고, 버리지 말고, 不快感을 주는 것들은 고개를 돌리며 두들대기 前에 스스로 치우고 청소할 줄 알아야 하며 보고 느끼는 靈感으로 哲學을 배우며 익혀서 心性을 기르고 心身을 鍛鍊시킬 수 있는 快適한 休養地 情緒涵養의 道場으로 利用할 줄 아는 眞正한 文化人이 되는 일이다.

探訪 經驗談이나 紹介말 속에 「그곳에 가면 맑은 물과 아름다운 꽃과 나무, 奇岩怪石의 오묘한 絶景이 神秘의 境地에 오른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사진은 바로 그곳이다. 다시한번 가보자」는 探訪談과 「저 꽃과 나무와 돌과 새는 그곳에서 꺾고 주어서 잡아온 것이다. 다시 갈 機會가 있으면 ××나무를 꼭 한그루 캐어와야 되겠다. 돈 벌면 저곳에다 山莊이나 지어놓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등의 覺悟와 자랑을 比較할때 너무나 큰 差異를 發見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相反된 自然사랑의 差異는 우리사회 어느구석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허다한 일중의 一例이다.

自然은 萬人의 것이지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우리 世代만이 享有할 수 있는 專有物이 아니고 子孫萬代에 이어져야할 永久的 享有物이다.

앞서 말한 前者의 利用姿勢가 바람직한 것이며 이러한 文化人만이 生活한다면 國立公園指定의 必要性도 구차한 制度的 구축과 限界를 設定하여 管理할 必要도 없으며 國立公園運動의 展開를 외칠 必要가 없어지는 것이다.

國立公園은 自然의 合理的 利用과 保全을 위하여 公園區域을 用途別로 區分하고 利用限界를 設定하고 있으나 이를 알고 지키는 探訪客은 少數에 不過하다. 이는 當局에서 積極的인 利用案內와 標識施設이 未備하고 弘報活動의 缺如에서 오는 理由가 커서 關心없는 探訪客에게 깨우칠 機會를 주지 못하는 點은 아쉬운 일이나 이러한 點들은 이미 樹立된 計劃에 따라 補完 擴充될 것이며 國民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自然 사랑하는 마음으로 自然保全과 福祉環境造成을 위한 永久的 事業인 國立公園運動에 參與하여 國立公園地域이 地上樂園으로 가꾸어질 수 있도록 自然의 價値觀 確立에 努力하여야 하지 않겠는가.